인도 "中 불교마케팅 배워 관광객 유치를"

'인디아투데이in' 1월 3일 보도

중국 관광객 매년 늘어나
불교 유적 마케팅 효과적
인도, 불교 마케팅 관심↑
"관광객 유치 모색" 주장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인도 아잔타 석굴의 지연화 보살상(좌측)과 중국 다퉁시 용강동굴의 불상(우측). 중국은 불상과 불교를 이용한 관광산업을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다. 불교 유적의 보고인 인도서는 이런 중국을 본받아 불교 관광 산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인도 내 관광 산업 장려를 위해 중국의 불교관광을 보고 배우자는 목소리가 높다.

인도 언론 '인디아투데이in'은 "중국의 불교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광객이 인도보다는 중국으로 간다"며 "인도가 불교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1월 3일 보도했다.

'인디아투데이in'은 인도가 관광 산업을 장려하는데 있어서 중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며 산시 성 다퉁(大同)시를 예로 들었다. 다퉁시는 석탄 채굴의 중심이었지만 대규모 나무심기 사업을 시작한 뒤 불교 관광의 매카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대표 불교 미술 유적지인 용강동굴(Yunggang grottoes)은 사암덩어리로 조각 돼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인디아투데이in'은 "중국의 각 도시가 불상을 재건·조각하는 등 외국인 관광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불교 유적 근처의 호텔이나 마케팅 등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런 모습을 보고 인도의 도시들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도가 중국에 비해 훨씬 더 깊은 불교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한국·일본 관광객들이 불교문화를 보기 위해 인도보다 중국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 불교에 관심이 많은 아시아권 관광객들이라도 인도에 많이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산시성 개발위원회 왕린 부국장은 "불상을 볼 수 있는 동굴 탐험은 우리 관광사업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동아시아뿐 아니라 인도의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인디아투데이in'이 진행한 인터뷰서 말했다.

'인디아투데이in'은 "세계 각국의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인도도 관광객 유치에 뛰어들어 외화벌이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좋은 불교 유적을 놀리면 안 된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의 불교관광을 배워야한다는 목소리가 인도 곳곳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쉐다곤 파고다 신년행사 '성황'

'미얀마타임스' 1월 2일 보도

불교 성지 쉐다곤 파고다서
대통령 등 다양한 불자 모여
유례 없는 규모의 신년맞이

세계 불자들의 성지순례지인 쉐다곤 파고다에 불자들이 운집해 신년을 맞이해 관심이 주목됐다.

'미얀마타임스'는 1월 2일, 미얀마 쉐다곤 파고다서 진행된 신년맞이 행사에 1만8,000여 스님들이 함께했다고 전했다. '미얀마타임스'는 정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미얀마 대통령과 정·재계 인사들과 불교계 인사들은 물론 일반 불자들까지 모두 참여한 유례없는 규모의 불교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큰스님 법문, 예불, 시상식 등이 쉐다곤 파고다의 각 모퉁이에서 열렸다. 스님들을 위한 기부금모연도 진행됐으며 스님들의 법문 참여 열기에 1월 1일부터 진행된 법문이 1월 3일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투라 우 아웅 코(Thura U Aung Ko) 미얀마 종교부 장관은 "이번 행사에는 스님들, 정부관계자, 재계인사, 일반 불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 많은 인원들이 함께 불공을 드리고 새해를 맞이한 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성공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쉐다곤 파고다는 미얀마 양곤 북쪽 언덕에 있는 둘레 426m, 높이 100m의 거대 불탑이다. 미얀마 역대 왕과 불교도들이 기증한 금판으로 외벽을 장식하면서 화려해져 세계 불자들의 성지순례지로 유명한 불교유적이다. 쉐다곤 파고다 내부에는 부처님의 머리카락과 유품이 있다.

박진형 기자



쉐다곤 파고다서 진행된 신년행사에 미얀마 불자들이 운집했다. 사진출처=미얀마타임스

사찰서 이슬람을 배운다?… 日 이색강좌 눈길

오즈시 사찰 이슬람교 강좌 …
다문화 공생사회 구성 목적

'니시니혼 신문' 구랍 27일 보도

일본 지카쿠 다이도 스님 '주목'
"다문화, 다종교 分別버려라"강조



일본서 이슬람교 등 타종교와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다. 지카쿠 다이도 스님은 서로간의 존중을 강조했다. 사진 출처=재팬타임스

일본 오이타현 오즈시 사찰서 이슬람교 강좌를 진행하며 다문화 공생사회에 노력하는 스님이 있어 화제다.

일본 '니시니혼(西日本)신문'은 사찰에서 이슬람교 특별 강좌를 진행하는 지카쿠 다이도(43) 스님에 대해 구랍 27일 보도했다. 지카쿠 스님은 도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아시아권의 내전지역을 지원하는 NGO '샨티 국제봉사회'에서 활동하며 이슬람교 무슬림들과 함께 일해왔다. 스님은 당시 "내전으로 황폐해진 나라들을 보며 대립과 편견은 상대에 대한 몰이해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통감했다"고 전한다.

스님은 일본으로 귀국 후 나라간 대립과 편견 등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 현 내의 무슬림들과 시민 간에 교류를 조금씩 늘리고 있다. 매월 다양한 인종이 모이는 법회를 기획, 참가하고 있다. 법회에 참가중인 파키스탄 출신 칸 무하마드 다힐(50)씨는 '니시니혼신문'과의 인터뷰서 "지카쿠 스님은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칭찬했다.

지카쿠 스님은 NGO시절을 회상하며 "언젠가 포교활동을 한다면 도쿄에서 하겠다고 생각했다. NGO직원 중엔 무슬림도 있었다. 당시 일본 내에는 억측과 편견에 사로잡혀 일반 이슬람교와 테러리스트를 동일시하는 시선이 많았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무슬림은 진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슬람에 대해 무지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처음부터 다시 공부했다"고 말했다.

지카쿠 스님은 2013년 일본으로 귀국 후 큐슈(九州)의 조동종(曹洞宗)승려들을 대상으로 인권연수회를 기획했다. 테마는 이슬람교. 마침 IS가 등장하기 시작한 때였다. 테러와 연계되는 이슬람교의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모스크에 가고, 스님들과 무슬림들간의 회담을 진행했다. 2017년 6월에는 스님들이 아닌 시민들을 대상으로 '절에서 이슬람'이라는 행사를 개최, 절에 무슬림들을 초대했다. 이렇게 상호간의 생활과 문화 등을 공유하다 보니 지카쿠 스님은 무슬림들에게 불교 강사로 초청받기도 했다.

지카쿠 스님은 '니시니혼신문'과의 인터뷰서 "NGO시절에 보았던 파키스탄의 내전 상황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민족과 종교에 대한 몰이해는 대립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한다. 서로간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이는 지식이 없으면 생겨나지 않는다. 일본에 무슬림들이 점점 늘어나니 이왕이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지 않겠나?"고 반문하며 웃어보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명상이 강력범죄 줄인다"

우간다 스님 자메이카 언론에 주장

"자메이카의 범죄는 마음챙김 명상이면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간다의 반트 부다라키타(Bhante Buddharakkhita) 스님은 2017년 한 해간 자메이카에서 1,600여 건의 살인이 일어났다며 이런 잔인한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불교 명상이 필요하다고 구랍 31일 현지 언론 '자메이카 옵저버'를 통해 주장했다.

새해를 맞아 지난 2017년을 돌아본 반트 스님은 자메이카의 강력범죄가 줄어들지 않았고, 특히 살인이 많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강력범죄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명상뿐이라는 스님은 "명상은 옆 사람에까지 전염시키는 힘이 있다. 한 사람이 명상을 하면 옆 사람도 함께 하게 된다. 명상을 하나의 신드롬으로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반트 스님은 특히 케냐를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케냐에서 폭력 가해자들에게 요가를 가르친 후 가해자들의 재범률이 줄었다는 주장이다. 스님은 "폭력적인 사람의 에너지를 비폭력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고취시키기에 사람의 에너지를 평화스럽게 변환하기 좋다. 명상은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명상이 살인같은 강력범죄를 이긴다고 주장한 우간다 반트 부다라키타 스님. 사진출처=자메이카 옵저버

박진형 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 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 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진액 하수오 추출액 100%

경북 안동시 풍산읍 높은산고지에서 약사사스님이 3년생 토종하수오를 농사 지어 정성껏 만든
토종하수오 진액을 판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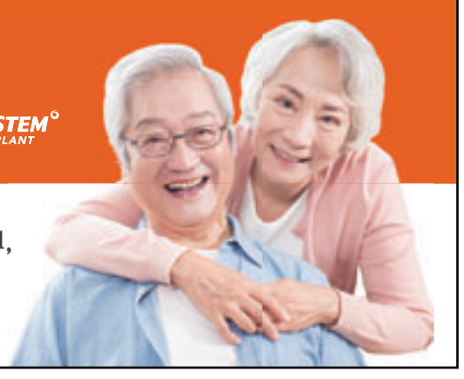
◆하수오의 효능 : 신체노화 방지. 탈모와 흰머리를 검게해주고 모발건강에 효능. 관절염 무릎통증에도 효과. 신장기능을 강화시킴.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강화. 동맥경화예방에 좋은 효능. 염증을 완화. 가래와 담을 제거. 종기나 치질. 만성피로의 개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하는 작용. 갱년기에 좋고. 고지혈증. 빈혈. 좋은 건강보조식품이니 드시고 백세인생을 건강하게 사세요.

제품 문의 : H·P 010-9692-5775
▸금액 : 150.000원 (무료배송) 50팩
입금 : 농협 351-0450-9156-23 [예금주 : 약사사]
경북 안동시 풍산읍 신양3리 11번지 대한불교 약사사



유앤아이치과
02.6204.2275

1등 임플란트, 오스템!
75 만원



OSSTEM IMPLANT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70-1,
남도빌딩 6층
(3호선 압구정역 4번출구)